

오늘은 수능 후기 시리즈 3탄으로 돌아온 '파급 효과'입니다.
수능 3교시 영어 자세한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자버렸네요 ππ 죄송합니다.

수능 0, 1 교시 후기 ---> <https://orbi.kr/00018889587>

수능 2 교시 후기 ----> <https://orbi.kr/00018924578>

점심

9평 때 메뉴 그대로 어머니께서 싸주셨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지 1, 생 2 수특, 수완 헛갈렸던 선지들 확인했습니다.
지 1 같은 경우 선지들을
다 평가원 기출이나 지 1 수특, 수완에서 가져옵니다.
18 수능 때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듯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특, 수완 답지에 있는 내용까지 빨리 훑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음식 얘기 나와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일단 식단 조절 정말 중요합니다.
꼭 모닝 X 싸고 오셔야 해요. 그래야 속 편하게 시험 봅니다. ㄹㅇ
이를 위해 지금부터 식단 조절하세요.
안타깝겠지만 매운 음식 등
장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자제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야식도 당연히 안되고요.
이것만 지키시면 모닝 X 패턴이 딱딱 맞게 잘 설정됩니다.

영어

이제 영어 시험입니다.
점심 먹고 약간 늘어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국어, 수학이 끝나 마음이 약간 놓이는 것도 있어
이제 수능 긴장감은 없어진지 오래 였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 모의고사 보는 건 가라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시험이었기에 파본 검사 때
일치, 불일치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듣기 들을 때 같이 풀려구요.
도표, 일치 불일치는 듣기하면서 해도
문장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어렵지 않기에 쉽게 합니다.
(단, 듣기에 한 두개 씩 놓쳐서 틀린다면 하지마세요.)
도표, 일치 불일치는 5번부터 봅니다.
대부분 답이 4-5 번에 있고 4-5 번에도 없다면 거의 3 번에 있습니다.

듣기가 끝나니 저는 이미 일치, 불일치 문제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맘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이 아니고 사실 당연히 막혔습니다.

34 번에 그 AI 인가 뭔가에서 막혔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적절하지 않은 단어, 문단 순서 맞추기 3-4 문제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 생각 안하고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뭐 돌아와서 다시 풀겠죠? 나중에 다시 풀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다 푸니 10 분 정도가 남았고 검토했습니다.

점수는 100 점....

수능 때 영어, 한국사, 지구과학 1 은 정말 즐겁게 풀었네요.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난거 같으니

영어 풀 때 꿀팁들을 드릴게요.

저도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지문들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밑에 있는 팁들을 따르면다면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올리려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1. 문제 풀이보다는 지문 해석 구조 위주로!

사실 해석이 안되는 건 단어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 단어를 외우지 않았습니.

(물론 중학교 때 토플 준비하며 영어 단어를 외우긴 했지만요.)

그러니 지금까지 영어에 완전히 손을 놓치 않았다면 이 정도 실력을 나올 것입니다.)

해석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어는 맥락으로 통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수능이 20 일 정도 남은 고 3, n 학생들은

ebs 수특, 수완 중 해석이 애매했던 문장들을

ebs 해설지를 보고 해석 구조를 잘 파악합시다.

Ebs 를 안풀었다면 유명 강사님들의

적중 예상 지문들이라도 제대로 해석이되는지 보고 갑시다.

(아직 중 3, 고 1, 고 2 라면 EBS 연계 교재를 해마다 풀어봅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가지 않았고 사실 교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ebs 교재들만 중 3 때부터 해마다 풀어보았습니다.

수특, 수완, 인터넷 수능 등등...(인터넷 수능 추억이네요.)

매년 소재도 비슷하고 해석 구조도 비슷한 문장들이

많이 포함된 지문들이 나옵니다.

잘만 보면 해석 구조 파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평가원 시험 때도 웬지 모르게 100% 연계 같습니다.

**3. 지문이 어려워도 당황하지 말고
바로 이해가 안되고 붕 뜨는 문장들은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 나올 때 기다린다.**

**18 9 평 이후로 항상 느끼는 건데 해석은 되는데
문장이 붕 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19 6 평의 경우 정말 어려웠구요.

(19 6 평은 풀어봤는데 지문이 정말 어렵지만
문제가 깔끔해 저는 45 분 걸려 다 맞았습니다.)

19 9 평은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

선지들이 매우 까다롭더군요. 95 점 나왔습니다.

정말 선지들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이 때 예시나 중요 문장들부터 봅시다.

예시나 중요 문장들은 의외로 해석이 쉽습니다.

평가원의 배려겠죠?

이를 위주로 이해가 안됐던 문장으로

돌아가 다시 읽읍시다.

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4. 일치 불일치 문제는 5 번부터 거꾸로 봅시다. 대부분 답이 4-5 번입니다.

5. 문단 순서 맞추는 문제는 B 부터 봅시다.

A 부터 보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알다시피 A 로 시작하는 선지가 1 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B 가 정 첫 문단에 나올 수 없다 싶으면 C 를 봅시다.

6. 초반에 주제 찾는 문제가

18 년도 9 월 평가원 이후로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은 끝까지 다 읽고 판단합시다.

너무 세세해도(예시들), 안되고, 너무 광범위 (첫문장 소개)해서도 안됩니다.

7. 영어는 의외로 기출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출을 보고 싶다면 15 년도 이후를 보는게 효과적입니다.

(너무 주관적일 수 있는 제 의견입니다.)

**8. 핵심 단어나 문장에 줄을 꼭 치고 선지를 고를 때
그 밑줄 친 단어나 문장 위주로 답을 골라내자.**

모든 수능 영어 문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선지로 바로 가면 평가원의 트랩에 빠져버립니다.
항상 돌아가는 근거는 그 밑줄 친 단어나 문장입니다.
분명 영어 2-3 등급 이상이면 딱 무슨 문장이 중요할 지 알겁니다.
중요한 문장들 해석은 의외로 쉽습니다.
안 쉽다면 쉬운 예시가 달려 와서 쉬워지니 걱정말시다.
실제로 저는 이걸로 고 1 때 불안불안 했던 영어를
난이도에 상관없이 95 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9. 빈칸 문제는 제발 선지부터 보면 안되고
그 빈칸에 알맞은 말을 내가 직접 쓰거나
그 지문 안에 있는 문장을 끌어 옵시다.**

너도 또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유용하실수도 있는 링크들

<https://orbi.kr/00018912302> ----> 수능 완성 기하와 벡터 선별, 관련 기출 및 실전적 꿀팁들

<https://orbi.kr/00018889587> ----> 18 수능 0,1 교시 후기

<https://orbi.kr/00018874580> ----> 18년 실시 교육청, 평가원 기출 선별

<https://orbi.kr/00018868599> ----> 수능 완성 미적분 2 선별, 관련 기출 및 실전적 꿀팁들

<https://orbi.kr/00018852528> ----> 수능 특강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선별 문제, 관련 기출

<https://orbi.kr/00018839767> ----> (경험담)수능 때 기적이라는게 있을까?

<https://orbi.kr/00018834366> ----> 수능날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왔다면? (경험담)